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복 구매행동과 디자인 선호도

이수정·이지연*·박명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 석사과정,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의진담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Performance Dress Purchasing Behavior and Design Preference of Pianists

Soo-jung Lee · Ji-Yeon Lee * · Myung-Ja Park***

Graduate Student,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Instruction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7. 8. 23. 접수, 2007. 11. 3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to study of musical performer's purchasing behavior, satisfaction and design preference, and to give the information for better performance costume market based on that result. The target for the survey is limited only for above 4th grade female students and have experienced more than three times of performances. Total 364 questionnaires are used for this research. The SPSS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were, first, in the survey of place of purchasing, specialty shop for musical performance shop was the most. The most group for the budget that they spent was under 100,000 Won. Rational price for costume would be 150,000-300,000 Won. Most people purchase costume before 2 weeks and compare 3-4 stores mostly. There were not many complaints about being comfort for costume itself. The preference for costume was different depends on not only scale of performance but also whether solo, duet or trio or more. Also harmony with other person costume was most consideration factor when they perform duet or more. For the choice of shop factor following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various selections, kindness of sales persons and possibility for trying various costumes. However, locations of shop or delivery service were not important relatively. For the choice of costume factor, design color, comfort and functionality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but price, quality and decoration were not. For 'the satisfaction after purchase costume' factor, people's opinions, best appearance on the stage and meeting image with themselves we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Second, on the subject for 'design preference of costume based on type of performance', people chose different color of dress depends on what types of performance. In case of solo, they prefer vivid primary color; in case of trio or more, they prefer black; in case of duet, they prefer pastel tone. As for preference of sleeve design, all of them prefer non-sleeve type.

Key Words: Performance dress(연주복), Purchasing behavior(구입행동), Design preference(디자인선호도)

Corresponding author ; Myung-Ja Park

Tel. +82-2-2220-1192, Fax. +82-2-2297-1190

E-mail : mjapark@hanyang.ac.kr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5-G).

I. 서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사람들은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사회나 영화,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공연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관객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대중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연의 내용과 수준 뿐 만 아니라 공연의 요소인 공연예술 의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공연예술 의상은 관객의 시선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 시각 환경의 한 부분으로 의복의 중요한 기능인 표현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공연예술 의상을 통해서 관객은 시각적 만족을 얻게 되고,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의 내용을 더 잘 표현하여 창조적인 예술성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적 아름다움의 표현뿐만 아니라 공연의 중요한 요소인 의상의 발전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연주복 시장과 전문화된 연주 의상에 대한 발전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동안 연주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야 연주복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1),2),3),4),5)} 주로 클래식 연주자들의 전반적인 연주복 디자인 선호도, 디자인의 제시, 실물 제작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 연주복 선택과정과 연주복 착용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며, 연주자들의 연주복에 대한 관심, 행동, 만족, 소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연주복의 구매행동과 연주 형식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분야 중에서 다른 악기와 차이가 있는 피아노에 초점을 맞추어 피아노 연주자들의 일반적인 연주복의 구매동향, 점포선택기준, 제품선택기준 그리고 구매 후 만족에 대해 알아보고, 피아노의 연주형식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주복의 구매동향과 연주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알아보고 구매행동 과정에서 일어나

는 요구 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주복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마련하고, 연주 형식에 따른 연주복의 디자인과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주형식에 맞는 기능적이고 미적 특성이 겸비된 전문화되고 다양한 연주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1. 연주복의 개념

연주복은 의상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특수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현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연주복은 연주를 위한 의상이며 연주의 내용, 연주자의 이미지, 곡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 또한 연주자는 연주복을 입음으로서 연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성뿐만 아니라 연주곡의 분위기를 이끌어내며, 곡을 더 잘 표현해낸다. 연주복은 연주곡의 성격이나 분위기, 연주자의 개성이나 내면세계, 전체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주 시에 적절한 연주복이 필요한 이유는 연주자들이 기능적으로 편안한 연주복의 형식을 갖춰 입음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연주를 할 수 있고, 한 곳에 집중하여 연주곡에 몰입한 상태로 예술성을 극대화시켜 더 아름답게 표현해 주며, 관객들은 연주복과 공연 분위기, 연주자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공연 분위기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연주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연희⁶⁾ 연구에서 ‘연주복은 무엇보다도 동작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연주곡의 분위기와 이미지에 충실해야하며, 연주자의 특징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시각적인 만족을 주는 탐미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여승화³⁾는 ‘연주복을 착용하면서 연주자 스스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연주되는 곡의 느낌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리며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감동을 증가시키는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연주복은 기능적인 요소와 표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연주자로 하여금 연주에 더 집

중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며 관객에게 시각적 아름다움을 주고 연주곡과 어울려 무대에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게 한다.

2. 연주복의 구매행동

의복 구매행동이란 소비자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과 개인적인 욕구 등의 동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류제품을 지각하고 정보를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⁶⁾. 구매행동의 구성변수로는 구매경험, 구입 횟수, 정보원, 의복구매동기, 점포 선택요인, 의복선택요인, 구매시기, 구매빈도, 구매가격, 지불 방법, 만족도 등의 여러 변수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류 구입을 위한 점포 선택 기준은 품질, 디자인, 교통, 편의시설, 지불방식, 서비스, 판매가격, 분위기, 디스플레이, 가격, 교환·환불, 판매원의 친절 등 다양한 기준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7,8,9)}.

피아노 연주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선행연구는 없었으나, 여승화³⁾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연주복의 선택기준으로 기능성, 심미성, 개성, 유명도 및 가격의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서 현악기와 관악기 연주자 모두가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심미성, 개성, 가격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가장 낮은 것이 연주복의 유명도로 나타났다.

연주복은 관객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연주곡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하며 다른 연주자의 연주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적합성, 연주자들과 의상의 조화, 연주곡과의 적합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류 구매 후 만족도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제품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 만족도 간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만족도는 소비자들의 향후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재구매를 하거나 주변에 정보를 알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불만족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구전정보를 형성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주복과 같은 특수한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으며, 구전정보에 의한 구

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소비자들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존의 만족과 불만족 연구를 살펴보면 최정원⁹⁾은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 요인으로 디자인 또는 스타일, 색상 또는 무늬, 체형적합성, 가격, 관리의 용이성, 점포의 물적 시설, 매장 내 디스플레이, 교통수단과 위치, 주차시설, 매장 내 상품의 다양성, 판매원의 친절 정도, 서비스 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주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민 입는 특수복인 점을 감안하여 연주복의 일반적인 구매 실태, 연주복 전문점 선택기준, 연주복의 제품 선택기준, 구매 후 만족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3.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도

연주복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연주 악기, 연주 횟수나 직업, 신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주복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연주자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연주 시 어깨나 팔의 사용이 많으므로 기능성이 높은 소매가 없는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실루엣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였으며, 첼로같이 다리를 벌리고 하는 연주자들은 스커트 폭이 넓은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원단이나 부자재의 광택을 사용한 무대 위에서의 조명 효과를 선호하였으며 심플하고 세련되면서도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연주복 시장은 다양하지 않은 디자인과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였다⁹⁾.

악기별로 연주복의 기능성과 디자인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데 피아노와 성악을 중심으로 한 박성율, 홍정민¹⁰⁾의 연구 결과에서는 피아노 전공자들은 슬림하고 소매가 없는 탑형 네크라인을 선호하였고 자수와 비딩의 장식과 색상에서는 흰색, 아이보리 계열, 검은색, 푸른색 계열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광택이 나는 실크, 공단, 레이스 순으로 선호하였다. 성악 전공자들은 프

린세스라인에 풍성한 원피스 형을 선호하고, 스윗 하트 네크라인, 서클러 소매, 색상은 아이보리, 붉은 계열, 노란 계열 순이고 우아한 광택이 나는 실크, 공단, 벨벳을 선호하였다.

다른 악기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프 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승화³⁾의 연구에서는 현악기 연주자들은 악기의 적합성과 연주형태의 기능성을 중요시하였고 신체움직임은 악기의 연주형태와 관련 있으며 소매와 진동부분의 기능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장식의 중요성은 덜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플함과 편안함의 기능성을 가진 드레스를 선호하였다. 하프 연주자들은 상체움직임과 발과 다리의 움직임이 두드러져서 스커트의 길이와 폭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주에 방해되지 않는 장식을 선호하였고 리본 장식 정도와 비즈의 사용 정도에 선호하였으며 페달을 사용하는 발의 경우 신발의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복의 디자인을 연구한 윤지영⁴⁾은 파이프 오르간의 구조와 특징에 맞는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였는데, 조형적으로 표현이 자유로운 원의 무늬가 반복과 형태변화로 율동성을 나타내어 기존의 고정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파이프 오르간 연주복의 기능성에 맞는 실루엣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원의 유기적이고 율동적인 곡선의 반복적인 흐름은 파이프 오르간에서 연주되는 음울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알맞았고, 연주복의 음악적 장식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여 연주복 디자인으로 활용하여 모티프와 디자인 표현에 있어서의 의상 장식기법으로 사용한 스팅글 자수와 비딩, 스티칭 자수 기법등 원의 조형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악기의 구조상 신체 중 다리의 사용으로 인한 스커트의 가운데 벌어지는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여러 곳의 절개로 다양한 형태의 스커트 디자인을 원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었고, 동시에 연주복의 미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클래식 음악 연주복에 대한 의복 태도와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에서 피아노 연주자들은 연주복에 대한 의복태도 요인 중 조화성과 편리성, 미적추구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자들은 소매가 없는 유형, 캐미솔 네트라인, 검정색을 선호하였고 프린세스 실루엣, 유연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조화성에 대한 중요성이 크고 소매 없는 형, 캐미솔과 탑 형, 검정색, 피트 & 플레이 실루엣과 유연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성악 연주자들은 미적추구가 높고 소매가 없는 형 홀터넥, 검정색, 피트와 플레이 실루엣, 유연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관악기 연주자들은 미적추구와 편리성을 추구하였고 소매가 없는 디자인, 탑형 네크라인, 검정색, 스트레이트 실루엣, 유연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연주자의 악기 특성에 따라 디자인 선호도가 다양했으며, 악기의 특성에 맞는 기능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연주자들의 전공 악기별로 구체적인 항목을 세분화시켜 악기별로 연주 내용이나 목적, 형식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피아노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도

피아노 연주복은 피아노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연주자가 의자에 앉아서 악기를 연주해야 하며 팔과 어깨의 동작범위가 넓다는 점과 페달을 밟는 다리의 사용도 디자인 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연주 시 관객에게 보여 지는 모습(입장할 때의 앞모습과 서서 인사하는 모습, 연주 시 옆모습, 그리고 퇴장할 때의 뒷모습)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의 디자인과 장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이나 색상, 기능적인 면을 연주 형식에 따라 다르게 제작되어야 하며 연주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일단 피아노 연주 시 앉았을 때 스커트의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소재에 있어서도 허리나 복부 부분이 불편하지 않는 소재를 써야 하며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관객에게 보여 지는 디자인적인 요소에 앞서 연주자가 연주할 때 어깨나 진동부분의 동작이 적합한지 우선 고려해야 하며 신체적 노출이 연주 시에 적합한지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연주복에 관한 연구 중 피아노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을 살펴보면, 이연희⁹⁾의 연구에서 색상은 흰색, 검정, 베이지, 파스텔 계통을 많이 선호하였고, 실루엣은 연주자의 개성과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A라인이나 Bell 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 없는 디자인의 선호도가 높았고 소재는 실크, 벨벳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장식에서 리본 장식, 자수, 큐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와 성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성울, 홍정민¹⁾은 피아노 전공자의 경우 색상에 있어서 흰색과 아이보리, 검정색을 선호하였고, 실루엣은 프린세스라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피트&플레어라인이 비슷하게 선호도가 높았으며 나머지 실루엣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편이었다. 소매에 있어서는 소매 없는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그 외 서클러소매, 캡 소매, 퍼프소매 순서로 나왔으나 대체로 선호도는 낮게 나왔다. 넥라인은 스윗 하트 라인이나 보우트 라인이 높았고 스커트 길이는 바닥정도의 길이를 대부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소재는 실크와 공단, 자수와 레이스, 비즈 장식을 선호하였고 페티코트의 유무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선호하지 않는 쪽도 많이 나왔다. 반면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에서는 색상은 검정색, 파스텔 톤, 아이보리·베이지 계열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루엣은 박성울, 홍정민¹⁾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프린세스 실루엣을 다른 어떤 실루엣보다 현저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소매 없는 형을 선호하였고 퍼프소매, 캡 소매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넥라인은 캐미솔 넥라인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소재는 유연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색상은 주로 흰색과 검정색을 선호하였고, 실루엣은 취향에 따라 다르거나 프린세스 실루엣을 선호하였다. 소매에 있어서 소매없는 형과 퍼프소매, 캡 소매를 선호하였고, 소재는 실크나 유연성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으며, 장식은 리본, 자수, 비즈 등을 선호하였다.

피아노 연주복은 연주형식에 따라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피아노 연주자들은 연주형

식에 따라 연주복에 대한 선호 기준이 다르다. 독주의 경우 작곡자의 의도와 본인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야하므로 작곡자와 연주곡에 어울리면서 본인 취향과 개성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게 된다. 연주복의 발달과 시대적 변화에 아울러 연주복은 과감히 자신을 표출하는 표현적 도구가 되고 있으며 독주 연주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연주복을 선택해야 한다.

중주일 경우 피아노 연주자는 독주자나 주 연주자의 보조를 맞춰 주거나 주 연주자의 곡을 더욱 빛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돋보일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주 연주자보다 덜 화려한 연주복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과감한 자기 개성의 표출보다는 주 연주자의 의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거나 주 연주자를 더 잘 표현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혹은 편한 평상복 같은 정장스타일을 입거나 치마 외 바지를 입기도 하며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 제약을 덜 받게 된다. 듀엣일 경우 두 연주자가 한 작곡자의 곡을 함께 연주하기 때문에 작곡자의 곡의 스타일에 맞는 의상을 선택해야 하는 것과 두 연주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듯 피아노 연주복은 개인의 취향, 신체 등에 따라 디자인 선호도가 다르며, 특히 연주형식에 따라서도 연주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선호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음악 분야 중에서 다른 악기와 차이가 있는 피아노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구매행동과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아 연주복 시장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주복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피아노 연주자들의 연주복 구매행동(구매동향, 전문점 선택기준, 제품 선택기준,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연주 형식(독주, 중주, 듀엣)에 따른 연주복 디

〈표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속성	구분	빈도	비율(%)
연령	만 20-24세	295	81.0
	만 25-29세	35	9.6
	만 30세 이상	34	9.3
거주지	서울	227	62.4
	경기도	85	23.4
	기타	52	14.3
학력	대학 재학 중	276	75.8
	대졸 이상	88	24.2
직업	학생	318	87.4
	직업인(강사, 원장, 교수)	46	12.6

자인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다.

IV. 결과 및 논의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피아노전공 여성으로 기본적인 연주경험과 연주복 구매 경험을 지닌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주 경험이 3회 이상인 연주자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7년 5월 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64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1>와 같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1),2),5),9),10)}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을 첨가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3부분으로 연주복 구매행동에 관한 문항, 연주복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 방법은 기초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인 빈도와 평균을 알아보았다.

1. 피아노 연주복의 구매행동

1) 일반적인 연주복 구매동향

피아노 연주자들의 일반적인 연주복 구매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연주 횟수를 알아본 결과 3회 이상-10회 미만인 5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20회 미만이 20.3%, 20회 이상이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주복의 구입 방법은 '기성복구매'가 20.6%, '맞춤'이 11.5%, '대여'가 63.5%, 기타가 4.4%로 '대여'가 가장 많았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명품관에서 구입'하거나 '전문 매니저가 구입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이연희⁵⁾의 연구에서 대여가 가장 많았고 기성복 구매와 맞춤 순으로 구입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앞으로의 구입 방법으로는 기존의 구입 방법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 '기성복구매'가 17.6%, '맞춤'이 15.7%, '대여'가 65.1%, 기타가 1.6%로 기존 구입방법과 마찬가지로 '대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희⁵⁾의 연구에서 대여가 가장 많았던 결과와 동일하나 맞춤이 그 다음이고 기성복 구매에 대한 응답은 없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주복만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곳이 드물

〈표2〉 일반적인 연주복 구매동향

문항	범주	빈도	백분율 (%)
연주 횟수	3회 이상-10회 미만	215	59.1
	10-20회 미만	74	20.3
	20회 이상	75	20.6
기존 연주복 구입방법	기성복구매	75	20.6
	맞춤	42	11.5
	대여	231	63.5
앞으로 연주복 구입방법	기성복구매	64	17.6
	맞춤	57	15.7
	대여	237	65.1
연주복 구입 및 대여 장소	연주복 전문점	259	71.2
	웨딩 샵	64	17.6
	맞춤/시장/기타	41	11.3
적당한 연주복 대여가격	10만원 미만	177	48.6
	10-20만원미만	158	43.4
	20만원 이상	29	8.0
적당한 연주복 구입가격	15만원미만	115	31.6
	15-30만원 미만	160	44.0
	30만원 이상	89	24.5
정보원	인터넷	28	7.7
	판매처	42	11.5
	주변 사람들	220	60.4
	기존의 경험	70	19.2
비교 매장 수	비교 안함	39	10.7
	1-2 곳	109	29.9
	3-4곳	111	30.5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올 때까지	99	27.2
연주복 선택 시 소요시간	30분 이내	29	8.0
	30분-1시간 이내	123	33.8
	1-2시간 이내	135	37.1
	2-3시간 이내	44	12.1
	3시간 이상	33	9.1
구입 및 대여 시기	1주 전	102	28.0
	2주 전	151	41.5
	3-4주 전	86	23.6
	4주전 이상	25	6.9
동행인	가족	133	36.5
	동료 연주자	78	21.4
	친한 친구	133	36.5
	혼자기타	20	5.5
연주복의 불편한 경험	많지 않다	162	44.5
	보통이다	152	41.8
	많다	50	13.7
합 계		364	100

고 기능성이 떨어지기 기성복 구매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주복의 구입 및 대여 장소로는 '연주복 전문점'이 71.2%, '웨딩샵'이 17.6%, '맞춤집이나 시장 및 기타'가 11.3%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직접 제작하거나 동료 연주자의 연주복을 빌려서 입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주로 대여한다는 응답자들이 웨딩샵이나 연주복 전문점으로 응답하였고, 구매한다는 응답자들이 맞춤집이나 시장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여 시 웨딩샵에서 한다는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웨딩샵의 경우 연주복으로서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앞으로 연주복의 기능성과 적절한 가격을 갖춘 전문화된 연주복 매장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주복 대여가격의 적당한 정도로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48.6%를 차지했고 10-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4%로 나타났으며 20만원 이상이 8.0%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여료가 너무 비싸다고 응답한 자들이나 가격에서 불만인 경우에도 대여료 가격을 10만원 안팎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연주복 시장에서 대여료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주복 구입가격으로 15만원 미만이 31.6%, 15-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44%, 30만원 이상이 24.5%를 차지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연주복의 형태는 A라인이나 실루엣이 부풀지 않고 몸에 붙는 라인이 대부분인데 가격이 30만원 이하이고, 페티코트를 사용하는 연주복은 주로 연주복 전문점이나 웨딩샵에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판매하는데 신상품이나 새 옷인 경우 70만원 이상이고, 한번이라도 대여했거나 기간이 오래된 연주복의 경우 구입가격이 30-70만원인 것으로 시장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연희⁹⁾의 연구에서 40-100만원이 가장 많고, 100-200만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결과와 다른 것으로 그동안 연주복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국내에서 생산된 연주복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주복 구입 시 필요한 정보원으로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7%, '판매처'가 11.5%, '주변 사람들'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0.4%로 가

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기존의 경험'이 19.2%, 기타의 경우는 1.1%를 차지하였다. 현재 연주복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거의 없고 판매처에서 정확한 가격의 책정이나 원단, 부자재의 표시에 대해서도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게 되고 인터넷에서 매장의 위치나 디자인 몇 개만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이며 기존의 경험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체적인 것으로 보인다.

비교 매장 수를 묻는 문항에서 '비교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0.7%, 1-2곳이 29.9%, 2-3곳이 30.5%,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올 때까지' 27.2%, 기타가 1.6%인 것으로 나타나 1-3곳 정도로 비교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가장 많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나올 때까지' 라고 응답한 경우도 비슷하게 많은 분포를 차지해서 연주자들이 개성이나 디자인 등을 많이 고려하고 연주복 선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주복 구입 및 대여하기 까지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8.0%, 30분-1시간 이내가 33.8%, 1-2시간 이내가 37.1%였고, 2-3시간 이내가 12.1%, 3시간 이상이 9.1%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장에서 연주복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스타일 내에서 선택하게 되고, 모든 드레스를 다 입어 볼 수 없는 실정 때문에 소요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연주자들이 예약해 놓은 드레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드레스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여 하는데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

연주를 앞두고 어느 시기에 연주복을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1주전이 28.0%, 2주전이 가장 많은 41.5%, 3-4주전이 23.6%, 4주전 이상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학생이고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연주를 바로 앞에 두고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여의 경우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본인의 신체에 맞게 가봉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가봉해두면 그 사이 다른 연주자가 대여할 경우 새로 가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하는 연주복을 사전에 예약해서

다른 연주자가 동일한 날짜에 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인 2주전에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1주전에 구입하는 경우 연주복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없고, 다른 연주자들이 이미 연주복을 예약했을 경우 나머지 연주복 중에서 선택해야 하므로 구입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주복 구매 시 동행인을 묻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5%로 가장 많고, ‘동료 연주자’가 21.4%, ‘친한 친구’가 36.5%, ‘혼자 및 기타’가 5.5%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고가의 연주복을 구입 및 대여하기 위해 가족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듀엣이나 중주의 연주복을 구입할 경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동료연주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이 아니고 졸업한 후 어느 정도 연주의 경험이 쌓인 경우에는 친구나 동료와 시간의 조율이 어려워서 혼자 가는 것으로 보인다.

“연주복으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지 않다’가 44.5%, ‘보통이다’가 41.8%, ‘많다’가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복으로 인해 불편한 경험이 많다”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에 대해 총 131명이 응답해주었고 그 결과를 빈도 순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연주복으로 인해 불편한 부분으로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깨끈이 흘러내리고 가슴 부분과 복부 부분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했다. 또한 몸에 너무 딱 끼거나 너무 헐렁해서 움직임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팔과 진동부분의 불편함’이 19.1%, 같은 비율로 ‘치마 길이의 불편함’이 19.1%로 나타났다. ‘소재의 불편함’은 9.9%로 나타났다. 소재의 불편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신축성이 없거나 피부에 닿을 때 너무 꺼칠한 느낌이 불편하다고 하였고, 너무 미끄러운 소재는 의자에서 밀려나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신체적인 노출

<표3> 연주복 불편 요소

요소	빈도	비율(%)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함	45	34.4
팔과 진동 부분의 불편함	25	19.1
치마 길이의 불편함	25	19.1
소재의 불편함	13	9.9
신체적인 노출부담	10	7.6
기타 (수선 등)	13	9.9
합계	131	100.0

<표4> 연주형식에 따른 연주복에 대한 태도(N=360)

문항	M(SD)	순위
독주, 반주, 듀엣, 협연일 경우에 따라 연주복의 스타일, 색상, 선호도가 다르다.	4.01(.86)	1
연주회의 규모와 연주목적에 따라 연주복을 다르게 선택한다.	3.88(.89)	2
듀엣 연주할 때 상대 연주자와 연주복에 대해 상의하여 선택 한다	3.86(.86)	3
중주 연주할 경우 주 연주자 (성악, 바이올린)의 연주복을 고려한다.	3.83(.86)	4
듀엣 연주복은 반드시 서로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3.81(.86)	5
듀엣 연주를 하거나 볼 때 연주복의 시각적 불편함을 느껴 본 적이 있다.	3.08(1.01)	6
듀엣 연주복 선택 시 어려움을 겪어 본적이 있다.	2.83(.98)	7
중주 연주할 때 연주복 선택의 어려움을 겪어 본적이 있다.	2.73(.97)	8

<표5> 중주 연주복 선택의 어려움

내용	빈도	비율(%)
다른 연주자와 조화	111	53.9
반주자로 튀지 않는 스타일 선택	45	21.8
다양성 부족	20	9.7
기능성	11	5.3
기타	19	9.2
합계	206	100.0

의 부담'이 7.6%이며 기타의 의견이 9.9%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수선이 잘 안되어 있거나 연주복을 대여하러 가고 다시 반품하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응답해 주었다. 또한 페달사용 시 스커트가 너무 길어서 밟힌다든지, 페티코트가 너무 딱딱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에도 비즈 장식이나 밑단의 바느질 상태 불량으로 구두에 걸려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착용감 불편, 색상과 디자인의 한계, 수선은 서서하고 연주는 앉아서 하는데 그 차이로 인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주었다.

연주형식에 따른 연주복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총 8개 하위항목으로 나뉘었고 그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두 문항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연주형식에 따라 연주복에 대한 선호경향이 다르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인 평균 점수가 4.01로 나와 연주자들이 독주, 중주, 듀엣, 협연 등에 따라 다른 연주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연주회의 규모와 연주목적에 따라 연주복을 다르게 선택한다'는 문항($M=3.88$)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 연주자들은 연주 형식이나 규모에 따라서도 다른 연주복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듀엣 연주할 때 상대 연주자와 연주복에 대해 상의하여 선택한다' ($M=3.86$)와 '중주 연주할 경우 주 연주자의 연주복을 고려한다'($M=3.83$)가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연주자들이 본인의 의상뿐 만 아니라 상대의 의상을 매우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주의 효과를 위하여 상대 연주자의 연주복과 조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주와 듀엣 연주복이 많이 부족한 연주복 시장의 현실에서 앞으로 기능적이면서도 다양한 중주와 듀엣 연주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의상 선택 시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

중주(반주) 연주복 선택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는 총 364명 중에서 206명이 응답해 주었다. 예비설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응답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빈도 순위별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연주자와 조화'의 어려움이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반주자로 튀지 않는 스타일 선택'의 어려움이 21.8%, '다양성 부족'이 9.7%, '기능성'이 5.3%, 기타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견이 주 연주자보다

<표6> 듀엣 연주복 선택의 어려움

내용	빈도	비율(%)
다른 연주자와 조화 (의견 불일치)	129	55.1
비슷한 스타일 구입의 어려움	42	17.9
다양성 부족	41	17.5
기능성	10	4.3
기타	12	5.1
합계	234	100.0

<표7> 연주복에 대한 개선점

내용	빈도	비율
다양성 (소재, 디자인, 색상 등)	65	37.6
적당한 가격	58	33.5
기능성 (편리한 소재, 소매 등의 기능)	21	12.1
다양한 사이즈	9	5.2
바느질, 세탁, 수선	7	4.0
기타	13	7.5
합계	173	100.0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연주자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곡의 분위기와 연주자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 의견으로 ‘선택하기 힘들어서 무난한 것을 산다’, ‘악기와와의 조화’, ‘가격’, ‘규제가 없어서 선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주일 경우 연주복의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 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반주로서 기능과 다양성을 살린 디자인 개발이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듀엣 연주복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문항에서는 총 364명중 234명이 응답하였다. 예비설문에서 나온 응답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나온 5가지를 객관식 문항으로 고쳤으며 빈도 순위별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6>과 같다. 그 내용은 ‘다른 연주자와 조화(의견불일치)’의 어려움이 5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슷한 스타일 구입’의 어려움이 17.9%, ‘다양성 부족’이 17.5%, ‘기능성’이 4.3%, 기타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복 선택에 있어서 듀엣일 경우 가장 어렵고 비슷한 의상을 구입하는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상대 연주자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곡의 분위기와 개인 스타일, 신체,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의견을 절충하였다 할지라도 유사한 의상을 구입하는 문제가 있으며 한 매장에서 비슷한 연주복이 없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본 후 비슷한 의상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듀엣 연주복에 대한 연주복 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연주

형식에 따른 연주복의 차이를 나누어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주복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나 개선점을 자유롭게 쓰게 한 문항에서는 173명이 응답해 주었고 빈도, 순위별로 정리한 결과 다음의 <표7>과 같다. 그 내용은 색상이나 디자인, 소재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적당한 가격이 33.5%, 기능성 요구가 12.1%, 다양한 사이즈의 구비가 5.2%이며 바느질, 수선, 세탁 상태 요구가 4.0%, 기타가 7.5%로 나타났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인터넷으로 연주복을 미리 볼 수 있게 하고, 배달이 용이하거나 대여 기간을 길게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 ‘연주복 전문점’이 적거나 찾아가기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디자인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연주 용도에 맞는 다양한 연주복이 구비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해주었다. 또한 ‘연주복에 어울리는 악세서리를 구비해 놓거나 디자인 뿐 만 아니라 색상, 소재, 품질 등이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고 하였다.

2) 연주복 전문점 선택기준

연주복의 전문점선택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여 높은 점수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8>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전문점선택기준으로 각 항목 마다 대체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주복 선택 시 전문점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는

<표8> 연주복 전문점선택기준 (N=354)

문항	M(SD)	순위
다양한 디자인 구비	4.02(.78)	1
다양한 색상 구비	3.99(.82)	2
판매원의 친절함	3.98(.87)	3
여러 가지 연주복을 입어볼 수 있음	3.95(.91)	4
다양한 소재 구비	3.89(.81)	5
연주복 상품 구색 (연주복 보유 개수)	3.75(.89)	6
신상품 구비 (정기적인 물갈이)	3.72(.93)	7
부가 서비스 (장식품, 화장, 헤어)	3.69(1.01)	8
디스플레이 상태	3.63(.89)	9
다양한 치수	3.62(1.79)	10
전문점 분위기	3.49(.85)	11
점포 위치의 근접성 (거리, 교통)	3.35(.91)	12
연주장까지 배달의 용이성	3.34(.97)	13
새로운 매장	3.21(.92)	14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다양한 디자인 구비’(M=4.02)와 ‘다양한 색상구비’(M=3.99)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원의 친절함’(M=3.98)과 ‘여러 가지 연주복을 입어볼 수 있음’(M=3.95) 순으로 비슷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조사 항목에서 마지막 순으로는 ‘전문점 분위기’(M=3.49)나 ‘점포위치의 근접성’(M=3.35), ‘연주장까지 배달의 용이성’(M=3.34), ‘새로운 매장’(M=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의복점포선택기준에 관한 손선화¹¹⁾와 신은주¹²⁾의 연구에서 20대 여대생들이 점포분위기와 구입 편의성, 서비스, 판매원이 가장 큰 영향 요인 이었다는 결과와 다르고, 주부를 대상으로 한 임경복¹³⁾의 연구에서 품질과 가격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는 결과와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주복이 일반적인 의복과 다른 특수복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무대 위에서 곡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과 색상이 갖추어져 있는 전문점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장에서 여러 가지 연주복을 직접 입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판매원의 친절한 서비스 등의 요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연주복만 전문적으로 취급하

는 매장은 거의 없지만 앞으로 연주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음악성과 심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화된 매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연주복 제품선택기준

연주복의 제품선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9>와 같다. 전체적으로 제품선택기준의 모든 항목이 평균 점수가 3.5이상으로 높게 나왔고 연주복의 제품선택기준에서도 대체적으로 연주복 선택 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M=4.36)과 ‘색상’(M=4.21)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였고 ‘착용감’(M=4.20)과 ‘연주 시 기능성’(M=4.04)이 비슷하게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와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의복제품선택기준에 관한 김은정¹⁴⁾, 이은아¹⁵⁾ 외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프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여승화³⁾의 연구에서 현악기와 관악기의

〈표9〉 연주복 제품선택기준(N=357)

문항	M(SD)	순위
디자인	4.36(.79)	1
색상	4.21(.80)	2
착용감(편리함)	4.20(.85)	3
연주 시 기능성	4.04(.89)	4
신체결점 보안	3.96(.94)	5
소재(재질)	3.90(.80)	6
세탁 상태	3.81(.89)	7
품질	3.77(.77)	8
가격	3.76(.85)	9
바느질 상태	3.66(.91)	10
장식	3.64(.95)	11
원하는 부분 수선의 용이성	3.59(.91)	12

연주자들이 연주복의 선택기준으로 기능성을 가장 중시하였고, 심미성, 개성, 가격 순으로 선택한다는 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의류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곡과 무대 효과를 높이는 연주복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연주자들이 좀 더 편하게 연주하여 음악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능성과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품질’(M=3.77)과 ‘가격’(M=3.7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는데 일반 의복제품선택기준에서 가격을 중요시하였다는 조은아¹⁶⁾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품질이 낮게 나온 것은 연주복이 오래 보관해서 입거나 브랜드의 의미 혹은 과시하기 위한 의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류의 선택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격이 낮게 나온 것은 가격보다는 무대의 효과나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므로 차후에 고려하는 것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항목에 비해 ‘장식’(M=3.64)이나 ‘원하는 부분 수선의 용이성’(M=3.59)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려 대상에서 비중이 낮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색상, 기능성의 고려가 가장 먼저 선택을 좌우하게 되고 선택된 몇 개의 연주복 내에서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4) 연주복 구매 혹은 대여 후 만족도

연주복 구매 혹은 대여 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순위대로 나타내면 <표10>와 같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주변의 평가’(M=3.64)와 ‘색상’(M=3.64)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무대 위의 시각적 아름다움’(M=3.61),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M=3.59), ‘자신의 연주곡과 부합’(M=3.54)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성표현’(M=3.25)이나 ‘가격’(M=3.20)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주자들이 연주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보여 지는 부분을 우선시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한 것으로 보이고,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한 연주복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성표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에 비해 가격이 높아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능성과 봉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는데 앞으로 연주복의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여 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연주복 구매 혹은 대여 후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3.42로 나왔다.

<표10> 연주복 구매 혹은 대여 후 만족도(N=352)

문항	M(SD)	순위
주변의 평가	3.64(.77)	1
색상	3.64(.68)	2
무대 위 시각적 아름다움	3.61(.78)	3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	3.59(.79)	4
자신의 연주곡과 부합	3.54(.80)	5
체형 결점 보완정도	3.52(.78)	6
디자인	3.51(.68)	7
소재(재질)	3.46(.66)	8
착용감	3.45(.79)	9
장식	3.43(.67)	10
연주 시 기능성	3.40(.77)	11
봉재상태(바느질)	3.26(.77)	12
개성 표현	3.25(.74)	13
관리상의 용이성	3.22(.76)	14
가격	3.20(.71)	15
세탁의 용이성	3.20(1.82)	16
전체적으로 구매 혹은 대여 후 만족하는가	3.42(.72)	

2. 피아노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도

연주형식에 따른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도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독주를 중심으로 순위별로 정리한 결과 <표11>과 같다. 우선 색상에 대한 선호도와 차이를 살펴보면 독주 연주일 경우 평균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색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한 원색의 평균 점수가 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파스텔 계열(M=3.24)과 흰색 및 아이보리나 베이지 계열(M=3.05)이었으며 검정색에 대한 선호도(M=3.02)는 4가지 색상 중에 가장 낮았다. 이는 이연희⁹⁾의 연구에서 흰색, 검정색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다르게 박성윤, 홍정민¹¹⁾의 연구 결과에서 흰색과 아이보리 계열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다르며,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에서 검정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연주자들이 독주일 경우 좀 더 화려하고 개성 있는 자기 이미지

와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색상에서 중주일 경우 검정색에 대한 선호도가 평균 점수 3.70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색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낮은 점수가 나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에서 듀엣일 경우 파스텔 계열이 평균 점수 3.26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검정색(M=3.23)과 흰색(M=3.05)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비비드한 원색(M=2.71)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엣 연주 시에는 상대의 의상과 맞추어야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경향을 살리기 보다는 조화를 우선으로 하여 절충적인 형태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너무 튀는 색상보다는 무난한 색으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중주와 같이 주연주자보다 비중이 약한 것이 아니고 두 연주자 모두 비중이 같기 때문에 너무 화려지도 않고 너무 무난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매의 유형에서 독주일 경우 이연희⁹⁾, 박성

<표11> 연주형식에 따른 연주복 디자인 선호도 (N=351)

구분	연주형식	독주		중주		듀엣	
		M(SD)	순위	M(SD)	순위	M(SD)	순위
색상	비비드한 원색	3.25(1.11)	1	2.44(.99)	4	2.71(1.02)	4
	파스텔	3.24(1.00)	2	2.98(.95)	3	3.26(.94)	1
	흰색·아이보리·베이지	3.05(.98)	3	3.01(.93)	2	3.05(.92)	3
	검정색	3.02(1.14)	4	3.70(.89)	1	3.23(1.01)	2
소매	소매가 없는 형	3.62(1.03)	1	3.22(1.00)	1	3.37(.99)	1
	캡 소매	2.78(1.08)	2	2.91(1.03)	2	2.87(1.05)	2
	퍼프 소매	2.14(.98)	3	2.25(.99)	3	2.25(1.01)	3
넥 라인	캐미솔	3.40(1.03)	1	3.13(1.01)	1	3.21(1.00)	1
	탑	3.12(1.16)	2	2.85(1.04)	2	2.96(1.03)	2
	홀터넥	3.03(1.08)	3	2.75(1.06)	3	2.91(1.07)	3
실루엣	프린세스	3.55(.90)	1	3.35(.95)	1	3.38(.97)	1
	피트 & 플레어	3.34(1.02)	2	3.02(.95)	2	3.07(.97)	2
	페티코트 넣은 크리놀린	2.68(1.14)	3	2.41(1.04)	3	2.43(1.04)	3
스커트 길이	바닥정도	3.45(.96)	1	3.35(.89)	1	3.32(.95)	1
	바닥에 끌리는 정도	3.11(1.00)	2	2.76(.98)	2	2.88(1.00)	2
	발목정도	2.43(2.01)	3	2.55(1.08)	3	2.47(1.07)	3
소재	공단	3.59(.89)	1	3.41(.89)	1	3.51(.89)	1
	실크	3.58(.92)	2	3.40(.92)	2	3.48(.92)	2
	쉬폰	3.32(1.02)	3	3.15(.97)	3	3.27(.97)	3
장식	비즈나 구슬	3.52(.98)	1	3.19(1.01)	1	3.34(.95)	1
	리본	3.21(1.05)	2	2.94(1.02)	2	3.03(1.03)	2
	레이스	3.03(.97)	3	2.82(.97)	3	2.96(.95)	3

을, 홍정민¹⁾,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매 없는 스타일의 선호도가 평균 점수 3.62로 가장 높았고 캡 소매(M=2.78)와 퍼프소매(M=2.14)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소매가 없는 형(M=3.22)이 가장 높았으나 독주일 때(M=3.62)보다는 낮게 나왔고, 캡 소매(M=2.91)와 퍼프소매(M=2.25)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왔으나 독주나 듀엣에 비해 높은 것으로 봐서 중주일 때 독주나 듀엣에 비해 소매 있는 유형에 대해 좀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듀엣일 경우 역시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매가 없는 형(M=3.37)을 선호하였고 캡소매(M=2.87)와 퍼프소매(M=2.25)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율, 홍정민¹⁾의 연구에

서 캡 소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다르며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에서 퍼프소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다르다. 이는 연주자들이 예전에 비해 보다 기능적이면서도 좀 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넥라인은 독주일 경우 어깨끈이 있는 캐미솔 넥라인이 평균 점수 3.40으로 가장 선호하여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와 같았고 그 다음이 탑형 넥라인(M=3.12), 홀터넥 넥라인(M=3.03) 순으로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역시 캐미솔(M=3.13)을 선호하였으며 탑형 넥라인(M=2.85)과 홀터넥 넥라인(M=2.75)은 독주일 때와 다르게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연주자들이 반주일

경우는 튀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듀엣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캐미솔 네크라인($M=3.21$)을 선호하였고 탑형 네크라인($M=2.96$)과 홀터넥 네크라인($M=2.91$)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의 경우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 숙이거나 움직이는 동작이 많은 관계로 탑형 네크라인보다는 어깨끈이 있는 캐미솔 네크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루엣은 독주일 경우 박성율, 홍정민¹⁾과 변지현, 김미영²⁾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래가 부풀지 않은 슬림한 프린세스나 A형 실루엣($M=3.55$)을 선호했고 비슷하게 피트&플레이 실루엣($M=3.34$)을 선호했으며 페티코트를 넣은 크리놀린 실루엣($M=2.68$)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프린세스 실루엣($M=3.35$)을 가장 선호하였고 피트&플레이 실루엣($M=3.02$)과 크리놀린 실루엣($M=2.41$)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엣일 경우도 중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프린세스 실루엣($M=3.38$), 피트&플레이 실루엣($M=3.07$)을 선호하였고 페티코트 넣은 부풀린 실루엣($M=2.43$)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티코트를 넣은 크리놀린 실루엣은 의자에 앉고 일어서는 불편함이 있고 잘못 앉았을 경우 페티코트가 엉키거나 겹쳐져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연주 시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는 독주일 경우 바닥 정도의 길이가 평균 점수 3.45로 가장 높았고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M=3.11$)도 약간 선호하였으나 발목 정도의 길이($M=2.43$)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바닥 정도의 길이($M=3.35$)를 선호하였으나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M=2.76$)와 발목 정도의 길이($M=2.55$)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주일 경우 스커트의 길이나 연주복의 제약이 덜 하여 정장(치마 혹은 바지)을 입거나 무릎 정도의 원피스를 입는 경우도 많다. 듀엣의 경우 바닥 정도의 길이($M=3.32$)를 선호하였고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M=2.88$)와 발목 정도의 길이($M=2.47$)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가 너무 길면 무대에 걸어 나올 때 밟히는 불편함과, 페달 사용 시에도 치마에 밟히는 불

편함이 있고, 반대로 너무 짧으면 걸을 때나 페달 사용 시 발이 보여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 정도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재는 독주일 경우 공단이 평균 점수 3.59로 가장 선호하였고 실크($M=3.58$), 쉬폰($M=3.32$) 3가지 모두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연희³⁾의 연구에서 벨벳과 실크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다르고 박성율, 홍정민¹⁾의 연구에서 실크를 선호하고 공단의 선호가 낮았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공단($M=3.41$)이 가장 높았고 실크($M=3.40$), 쉬폰($M=3.15$) 순이었고 듀엣일 경우도 역시 공단($M=3.51$)을 가장 선호하면서 실크($M=3.48$), 쉬폰($M=3.27$) 모두 비슷하게 선호하였다. 연주자들은 디자인과 색상 위주로 연주복을 선택하게 되고 소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졌는데 예전에는 팽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선호하거나 벨벳 같은 소재를 많이 선호하였으나 요즘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가지 소재에 대해서는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식은 독주일 경우 비즈나 구슬($M=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리본 장식($M=3.21$)이며 레이스 장식($M=3.03$)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박성율, 홍정민¹⁾의 연구에서 자수나 레이스를 가장 많이 선호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중주일 경우 비즈나 구슬($M=3.19$)만 약간 선호하였고 리본 장식($M=2.94$)이나 레이스($M=2.82$)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엣의 경우 비즈나 구슬($M=3.34$), 리본($M=3.03$)은 선호했으나 레이스 장식($M=2.96$)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비즈나 구슬은 조명을 받아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고 레이스는 다소 심플해 보이지 않고 유행이 지난 디자인 같아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주는 독주일 때보다 덜 화려하거나 주 연주자의 의상보다 드러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장식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연주 형식에 따른 연주복 디자인 선호도와 차이를 알아본 결과 독주일 경우 비비드한 원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개인 취향에 따라 나머지 색상에서 선호하였으나 검정색과 흰색

은 선호도가 낮았다. 소매에서 소매가 없는 형을 선호하였고, 네크라인에서는 캐미솔과 탑형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리고 프린세스, 피트와 플레어 실루엣, 바닥정도나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스커트 길이와 공단, 실크, 쉬폰 소재를 선호하였으며 장식에서 비즈나 구슬, 리본 순으로 선호하였다.

중주일 경우 검정색을 선호하였으며 소매가 없는 형과 캐미솔 네크라인, 프린세스 실루엣, 바닥정도의 스커트 길이를 선호하였으며 소재는 공단, 실크, 쉬폰 순으로 모두 선호하였고 장식은 비즈나 구슬 장식에서 약간 선호하였다.

듀엣의 경우 파스텔 계열의 색상과 소매가 없는 형, 캐미솔 네크라인, 프린세스 실루엣을 선호하였고 바닥정도의 스커트 길이와 소재에 있어 공단, 실크, 쉬폰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비즈나 구슬 장식을 선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공연예술 문화가 증대됨에 따라 음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들이 음악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넓어지고 있다. 대중음악 뿐 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대중들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연주자들은 음악적 전문성을 표현할 뿐 만 아니라 연주장소, 무대 연출, 의상 등의 연주의 성격을 좌우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중 연주복은 연주자가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관객에게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공연의 분위기 연출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아노 연주복에 초점을 맞추어 피아노 연주복에 대한 구매행동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아노 연주복의 구매동향을 살펴보면 연주복 마련은 주로 ‘대여한다’가 많았고 대여 가격으로는 10만원 미만인 이였고, 구입가격은 15-3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다. 연주복 구입에 필요한 정보원으로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얻었고, 연주형식에 대한 태도에서 대부분 ‘연주회

의 규모와 연주 목적 및 연주형식에 따라 디자인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주나 듀엣 연주 시 다른 연주자와 연주복에 대해 고려하거나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엣과 중주 연주복 선택 시의 어려운 점으로는 ‘다른 연주자와 조화의 어려움’을 꼽았고 ‘다양성 부족’, ‘의견의 불일치’ 등이 있었다. 연주복 선택기준으로 ‘디자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색상’과 ‘착용감’, ‘기능성’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격’과 ‘품질’, ‘장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나왔다.

둘째, 연주복 디자인 선호도에서 색상에서 독주일 경우 ‘비비드한 원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중주일 경우 ‘검정색’을 가장 선호했으며 듀엣일 경우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에서 연주형식에 따라 모두 소매 없는 형을 가장 선호했고 ‘캡소매’와 ‘퍼프소매’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크라인은 ‘캐미솔네크라인’, 실루엣은 프린세스 실루엣, 소재는 공단, 실크, 쉬폰 순으로 선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연주복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얻게 되어 연주복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연주복 시장에서는 다각적인 홍보와 연주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연주복 가격의 책정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부가적인 서비스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피아노 연주자들은 연주 규모나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이 다르고 중주나 듀엣 연주 시 기능성을 매우 중요시하거나 상대 의상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주형식에 따라 연주복의 디자인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주형식에 맞고 연주자의 신체와 연주 스타일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연주복 개발이 필요하다. 중주 연주복으로 다른 연주자보다 튀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무채색 계열의 기능적인 연주복 개발이 필요하고, 듀엣 연주복으로 두 연주자의 비중이 같도록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비슷

한 분위기, 비슷한 디자인, 비슷한 색상의 구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악기별 연주복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아노만의 전문화된 연주복이 절실하고,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전문적인 연주복 매장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박성율, 홍정민 (2003). 연주복 선호디자인에 따른 패턴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5), pp.465-469.
- 2) 변지현, 김미영 (2005). 클래식 음악 연주복에 대한 의복 태도와 디자인 선호도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3) 여승화 (2003). 악기종류에 따른 기능적인 연주복 디자인 연구 -성인여성의 하프 연주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 윤지영 (2004). 원의 율동성을 응용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복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이연희 (2000). 연주복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의상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이금실 (1992). 사회 계층변인에 따른 여성의 의복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 이기철 (2000). 백화점고객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8) 장수진 (2000). 동대문과 압구정 상권 여중·고생의 의복행동과 선호점포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최정원 (2002). 주5일 근무 직장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김정임 (2002). 의류제품의 구매과정과 구매 후의 소비자 불만족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1) 손선화 (2002). 여대생들의 의복쇼핑성향과 점포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비즈니스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신은주 (2003).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점포선택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여대생들의 청바지 구매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임경복 (1994). 시간지각이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김은정 (1998). 유행의견선도력과 의복구매행동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5) 이은아 (2000). 주관적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조은아 (2003). 청소년 과시소비성향과 수입명품 및 유명브랜드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태도 및 구매행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